

인도네시아, 옥천 포도 13톤 수입



충북 '옥천포도'가 해외시장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. 14일 옥천군에 따르면 이달 초 뉴질랜드에 20t을 수출한 데 이어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 13t을 추가로 내보낼 예정이다. 베트남과도 수출 상담도 성사돼 시기를 조율 중이다. 2008년 인도네시아에 첫 수출돼 해외시장을 뚫은 '옥천포도'는 지난해까지 뉴질랜드, 베트남, 말레이시아에 132t을 수출했다. 옥천에는 342ha의 포도를 재배하고 있는데, 이 가운데 250ha가 비닐하우스(시설)에서 재배된다. 시설 재배면적은 전국에서 가장 넓다. '옥천포도'는 2011년부터 5년 연속 국가브랜드대상 선정위원회가 뽑은 포도 부문 1위에 올랐다.

□ 시사점

인도네시아 내 한국 산 과일 진출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. 특히 한국에서도 품질을 인정받은 전주 배, 곡성 딸기, 거창 사과 등도 속속 인도네시아 과일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, 앞서 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이 지난해 복숭아, 포도, 배 등 12톤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기도 했음. 이번 옥천포도의 수출도 대인니 수출의 청신호로 보여지며, 앞으로 한국산 과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현지 시식회, 바이어 상담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. 또한 생산자 및 수출업체도 지속적인 품질 관리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.